새 승리를 향하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력동적인 기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부름이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이는 세세년년 간직해온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조선이 높이 추켜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견인하는 리정표가 제시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첫해 사업에서부터 뚜렷한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강령이 명시됨으로써 공화국은 전례없는 신심과 열의속에 새 승리를 향한 진군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새 승리를 기약하는 력사적리정표

조국청사에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특기할 정치적사변이였다.

수천만 조선인민이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해 애국충정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온 누리에 높이 떨치고있는 세계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의 영광스러운 행로에서 여덟번째로 맞이한 이 뜻깊은 대회는 우리 국가의 전진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였다.

현시기 공화국은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다.

돌이켜보면 당 제7차대회가 밝힌 사회주의건설의 당면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해 용진하여온 공화국의 지난 5년간은 최악중의 최악으로 겹쳐든 난국의 련속이였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자기의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달성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써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대대손손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줄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를 갖추어놓았다.

더욱 확대강화된 국력과 비약적으로 상승한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

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하였음을 뚜렷이 알리였다.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 이룩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바야흐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라는 절박한 시대적요구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변천된 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부단한 새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

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것이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중요한 과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예민한 국내외정세의 복잡다단한 변화와 그것이 공화국에 미치는 주객관적환경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정확히 총화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과 정세에 립각하여 국가경제토대의 재정비와 발전,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 등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였으며 조국통일위업과 대외관계를 전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도 뚜렷이 밝혀주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자체의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이며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최강의 국가방위력까지 비축한 공화국에 있어서 절실하고 관건적인

것은 자립경제의 부흥발전목표를 기어이 달성하는것이다.

이 목표수행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승리와 거대한 위력을 굳건히 담보하고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객관적인 형세는 물론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할수 있는 묘술이며 기본열쇠인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증대시키는데서 자립경제를 상승궤도에 속히 올려세우는것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당대회에서는 먼저 앞으로의 5년간 경제분야에서의 투쟁전략을 천명하였다.

현 단계에서 공화국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설정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주요하게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

정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금속과 화학,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정비발전방향과 교통운수, 건설, 대외경제, 관광 등 기타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

업들에 대하여 뚜렷이 제시하였다.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고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할데 대하여서와 원가저하와 질제고를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에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를 정비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데 대하여 그리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였다.

당대회에서 천명된 주요경제부문별 정비발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과 명확한 방침은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외적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무기로 된다.

당대회에서는 또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페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고 농업과 경공업, 수산부문의 발전방향과 중심과업을 명백히 제기하였으며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데 대한 총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었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그리고 정치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들에 대하여 명확히 밝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는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들이 철저히 관철되면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인민들에게 부럼없는 복락을 안겨줄수 있는 지름길이 열려지게 될것이며 이것은 곧 공화국이 이룩하게 될 또 하나의 새 승리를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할것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 말씀은 우리 국가와 인민앞에 나선 중대한 력사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주고있다.

이민위천과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조선로동당의 향도력을 더욱 높이고 군중적지반을 반석같이 다지는 근본비결이고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근본방도이며 광명한 미래를 최대로 앞당겨올수 있는 근본담보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혁명사상의 중핵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에 기초한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철통같이 다지는것,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을 구현해나가는것이야말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부단히 증대시켜 부닥치는 난관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책으로 된다.

3가지 리념을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사상에는 주체조선특유의 지도사상, 전진방향, 발전방식의 절대적우월성에 의거하여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공화국의 력사는 그 개척과 발전의 전 과정이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떠받들어온 력사,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의 력사, 자력으로 만난시련을 돌파하며 창조와 건설을 전진시켜온 영광의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3가지 리념을 다시금 각인시킨것은 객관적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자기가 구상하고 설계한대로,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정해진 시간표대로 드팀없이 전진시켜나가려는 견결한 의지와 자신감의 발현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떠받들려 발전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전체 인민이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하나가 된 나라, 자립, 자력으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강력하고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당대회에서 제시된 3가지 리념에 무한히 충실하고 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완벽하게 구현해나갈 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태가 굳건히 고수되고 공화국의 무한대한 저력, 발전잠재력이 더욱 힘있게 발양되게 될것이다.

장구하고도 간고한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명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이 새 승리를 위한 구호로 제시됨으로써 오늘의 엄혹한 도전과 장애를 격파하고 줄기찬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

은 당 제8차대회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그 진행의 전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투시해보면서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목표를 세운 실리있는 대회》, 《당대회집행부와 대표자들이 새롭게 구성된 대회》, 《로동당의 상징이 더욱 부각된 대회》, 《당대회 전 과정이 특색있게 보도된 대회》 등으로 비중있게 보도하였는데 그만큼 당 제8차대회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온 행성이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력사적인 대회였다.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디딤점, 리정표로 되는 당 제8차대회는 사회주의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의 투쟁전망에 있어서나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주체위업의 새로운 승

리적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나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이며 사회주의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하고 공화국의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대정치적사변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의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당하였다.

오늘의 간고한 상황에서 당의 최고회의가 소집된것은 창조와 건설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

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된다.

력사적인 당대회를 통하여 우리 국가와 인민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보다 선명해졌으며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이 더욱 확실해졌다.

새 승리!

이것은 폭풍사나운 시련의 고비들을 무수히 헤쳐넘으며 언제나 승리만을 거듭하여온 빛나는 전통과 무궁무진한 힘을 비축한 강력한 국가, 강용한 인민만이 내세울수 있는 원대한 목표이다.

오늘날 공화국을 둘러싼 외부적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국가사회제도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더욱더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

어지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과 시련속에서 남들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백절불굴의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 실현불가능한 목표란 있을수 없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번영의 년대들을 굽힘없이 이어가는 행로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충천하는 열정과 패기에 넘쳐있다.

《세인이 경모하는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행운의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제일재부로 간직하겠다.》, 《눈앞에 어려오는 래일의 새로운 승리로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가 용솟음친다.》, 《인민을 신성히 떠받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있어 이 땅우에는 반드시 인민의 제일강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이것이 래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조선의 숨결, 온 나라에 굽이치는 민심의 대하이다.

최정예강군의 첨단주력장비들이 위세를 떨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과 평양의 밤하늘을 오색찬연히 물들인 경축의 불보라는 사회주의조선이 굳은 각오와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진격의 출발선에 나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이였다.

크게 내짚은 전진의 첫걸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공화국은 전례없는 희망과 약진의 기세로 새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크게 내짚었다.

2021년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올해는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이다.

첫시작을 어떻게 떼는가에 따라 올해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고 나아가서 앞으로 다섯해의 운명이 걸려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첫걸음을 잘못 떼면 다음 걸음이 힘들어지고 첫해가 흔들리면 다음해에는 신심조차 가질수 없게 된다.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열어놓은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본격적인 발전단계에로 강력히 추동해나가자면 올해에 반드시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해야 한다.

온 나라가 당대회결정관철의지로 끓어번지던 지난 2월 8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공감되고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당대회결정관철에로 강력히 인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기 위한 취지에서 소집되였다.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혁명적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견결히 보

위하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를 기어이 이루어내자는것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뚜렷이 제시하였다.

우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경제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올해사업을 잘하자면 그 작전도, 설계도인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실속있게 수립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실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수 있게 발전지향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목표들을 제기하고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면서 생산능력과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국가적인 비상방역규률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것 역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태세를 철저히 견지하면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5개년계획수행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인재육성을 앞세우고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는것을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올해 인민경제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무엇보다도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발 및 채취, 기계공업, 림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현행생산을 진행하면서 생산토대를 보강하는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제들이 제기되고 그 실현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를 정비보강하는데 올해사업의 중심을 두고 철길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데 대하여서와 건설건재공업부문에서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과 지방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세멘트생산능력확장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각이한 건재품들에 대한 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과업

들이 제기되였다.

또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경공업부문에서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경공업제품생산을 최대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그를 위해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원성능회복과 새로운 생산능력조성, 지방공업의 활성화 등을 올해의 사업중심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시, 군강화로선을 관철하고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기 위하여 올해에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번듯하게 꾸려 내세우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올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서도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무엇보다도 올해 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

을 철저히 집행하여 알곡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지며 농업지도기관들이 농사작전을 예견성있게 잘하고 특히 재해성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이와 함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으며 뜨락또르와 농기계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데 대해서와 관개체계와 시설물들의 복원, 관수면적의 확장 그리고 간석지건설과 새땅찾기, 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축산물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며 영농물자보장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과업 등이 제기되였다.

이밖에도 수산, 상업, 체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그리고 과학, 문화부문에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주되는 과업들이 상세히

지적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올해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에 대하여 밝혀주었다.

특히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과업들이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이를 위하여 내각과 국가경제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도관리의 개선을 시급히 해결하는 문제,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문제,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생산총화를 맵짜게 하는 문제,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

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였다.

이밖에 경제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해서와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해나갈데 대한 과업등이 뚜렷이 제시되였다.

회의기간에 모든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보고의 내용과 진수를 깊이 연구하고 그에 립각하여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들과 방침들이 정확히 구현되고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충분히 반영된 올해 각 부문별사업계획과 전투목표들을 수립하였다.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때까지 내재하고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병집들을 찾아내고 제때에 시정할수 있게 되였다는 의미에

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된 의의깊은 회의였다.

사실상 오늘의 주되는 장애는 자재, 설비의 부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애로와 난관이기 전에 진부하고 무책임하며 구태의연한 일본새라고 할수 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실현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타산한데 기초한 현실성있는 계획이지만 어느 단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땅짚고 헤염치는 식으로 손쉽게 수행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내걸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패배주의적관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수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 전후의 극도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탄생한 눈부신 천리마시대가 바

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불사르는 과감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되였듯이 오늘의 새 승리도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비상한 책임감과 결사의 실천력으로써만 이룩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승리는 곧 새 인간의 탄생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있은 이후 사람들의 사상적각오와 기풍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일군들스스로가 지난날 자기 두뇌와 팔다리를 속박하던 보신과 보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새 출발을 함으로써 인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겠다는 결의들을 다짐하였다.

뿐만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의 요구대로 실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수 있게 발전지향

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목표들을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옳바로 확정함으로써 올해의 첫걸음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보폭을 크게 내짚을수 있는 현실적인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더 좋은 래일을 마중가는 희망찬 려정에 오른 조선의 첫걸음은 더없이 기운차고 활력에 넘쳐있다. 갈길은 명확하고 목표는 뚜렷하며 신심도 대단하다.

사람들 누구나 약동하는 시대의 박력과 리듬으로 호흡하며 생기와 활력으로 충만된 조선의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쳐오신 크나큰 헌신, 거룩한 령도의 손길과 력력히 잇닿아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선견지명으로 주체위업수행의 책임적이고 관건적인 발전단계가 성숙하였음을 통찰하시고 새 승리에로의 이행을 예견성있게 준비하여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장 적실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력사의 방향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그 첫 진군의 표대를 명확히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인민을 위한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임을 확약하는 엄숙한 맹세로 동터오는 새해의 려명을 남먼저 맞이하시고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새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시며 열정에 넘친 보고를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거룩하신 모습,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하시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위하여 싸워나아가자고 하신 그 열렬한 호소는 온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을 크나큰 감동과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5년간의 중장기과업만이 아니라 그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

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강령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의 사색과 심혈로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웅략을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조건과 환경에 포로되여 지난 시기의 소극과 보신을 답습하던 일군들이 대담한 진격의 기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발전지향적인 명략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완성시켜주신 그이의 비범한 통찰력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서 력사적인 2021년의 장엄한 첫걸음이 시작되였다.

어찌 이뿐만이겠는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여러날에 걸쳐 참가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몸소 개강사와 결론, 폐강사를 하시면서 일군들이 자기앞에 부여

된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주의조선의 2021년이 과연 어떻게 밝아왔고 또 어떻게 전진해나가고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케 하여주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은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책임감,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력은 조국땅우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를 펼치는 자양분이다.

한없이 숭고한 애국애족, 위민헌신의 뜻

을 높이 받들어 온 나라가 산악같이 떨쳐 나서고있다.

지난 2월 22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궐기모임이 현지에서 열리였다.

모임에서 황철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며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계획의 첫해 과업수행에 총매진할것을 궐기해나서면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황철에서 울려퍼진 힘찬 호소에 화답하여 금속, 화학, 석탄, 림업 등 주요경제부문들에서 보다 높이 세워진 2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각지의 근로자들이 맡겨진 목표들을 제기일내에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　　　*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웅변가는 승리라고 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이것은 건국의 초행길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로정우에 찬연히 아로새겨진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이고 고유한 전통이며 변함없는 발전법칙이다.

지금 이 시각도 국제사회계의 시선은 조선이 반동세력과의 첨예하고도 치렬한 대결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을 관철해나가는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있다.

올해 3월 23일에 진행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은 세계에 주는 조선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다.

이날 지축을 뒤흔들며 울려퍼진 착공의

발파소리는 그 어떤 격난이 앞을 막아선다고 해도 인민들에게 약속한 훌륭한 미래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려는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것으로 된다.

남들 같으면 몇십번이나 붕괴와 혼란의 소용돌이를 피할수 없었을 그 장기간의 혹독한 격난속에서 끗끗이 살아 견디여냈을뿐아니라 오히려 나날이 강해지고 보다 세련되여 더 높이 솟구쳐오른 사회주의조선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정신력의 승리인 동시에 시련속에서 착실히 련마하고 증대시켜온 자강력과 무진장한 발전잠재력의 폭과 심도를 그대로 반증해주고있다. 이런 힘이면 새로운 전략목표수행은 능히 실현가능한것이며 이 려정의 매 단계마다에 정확한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들을 련이어 세우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끝없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힘찬 진군의 발걸음속도와 더불어 이 땅우에서는 또다시 기적과 변혁의 신화가 창조되게 될것이다.

새 승리를 향하여

집 필	리 철 민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4월 28일
발 행	주체110(2021)년 4월 30일

ㄱ-1498ㄷ